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결혼 이야기

성경: 요한복음 2장 1-11절

Tag:

- 1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 2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 3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 4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 5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 6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 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 8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 9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 10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 11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2:1-11)

오늘 성경 이야기의 주제는 결혼 이야기

성경에는 결혼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온다.

대부분의 결혼 이야기는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이야기지만, 사례가 너무 많다보니 성경에 기록되지 않게 되고, 예외적이고 특별한 이야기만 기록되다 보니 보편적인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았다.

보편적인 이야기는 두 사람의 청춘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마침내 결혼하게 되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다가, 자녀도 낳게 되고, 자녀를 믿음 안에서 성경 말씀으로 잘 길러서 어엿한 일군이 되게 하고, 손자 손녀까지 보면서 여생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천국에 가게 되는 이야기다.

특별한 이야기는~

첫 번째 결혼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 (모든 결혼의 모델)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

드라마틱한 결혼 이야기는 야곱의 결혼 이야기

하마터면 스캔들로 번질 수 있었던 유다와 다말 이야기

기생 라합의 경우는 믿음을 향한 대범한 도전으로 성공한 결혼 이야기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결혼에 성공한 두 번째 이야기는 룻의 결혼 이야기

다윗의 결혼 이야기는 왕가의 결혼 이야기

호세아 선지자가 창녀와 결혼한 예언적 이야기 등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어떤 혼인잔치에 참석했는데,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한창인

데 그만 포도주가 바닥이 났다. 이거 난감하게 되었는데, 평소에 예수님의 능력을 잘 알고 있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먹보 제자들이 많음...)

예수님은 당시 제자를 양성하시면서, 언제쯤 공개적으로 일을 시작하실까를 저울질하고 계셨기에, 어머니의 부탁에 섧불리 응하지 않으셨는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차마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으셨다.

결국 혼인집은 첫날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행운을 경험하였다.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 후로부터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형성되었다는 내용이다.

특별히 모든 결혼한 가정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낸다.

어머니 마리아의 확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초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초대하는 촛불이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란다.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서 실로 어마어마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한 집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자녀로 인한 기쁨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며 보람이다. 아직 나는 경험하지 못해 보았는데, 주변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손자 손녀로 인한 기쁨 때문에 오래 살고 싶어하시는 것 같다. 이런 모습은 세상에 가장 흔한 가정의 모습이다.

그러나 평범한 결혼생활이라고 해도 실제적으로는 모든 가정마다 수 많은 변수들이 파생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변수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반대로 역시 아무일 없는 평범한 가정은 무미건조한 인생이라는 말도 아니다. 정확하게, 아무 탈 없이 꽃길만 걷는 인생이 과연 있을까? 있다면 제보해 주시라.

대부분 서너 가지 어려움이 있고,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상처는 싸매고,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혹시라도 병에 걸렸다면 투병하며 건강을 되찾게 되고, 그런 어려움을 온 식구가 힘껏 도우면서 극복하면서 행복해 한다.

과거에는 자녀들이 많았고, 그래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도 생겼다. 요즘 가정은 그 가지가 대부분 한두 개라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속담이 되었다.

요즘에는 결혼 적령기가 과거보다 늦어지고 있다. 내가 (20대였을 때에는)총각 때는 여자 나이 26세면 결혼 적령기라 여겼고, 27세면 빨리 시집가야 한다고 말이 돌고, 혹시라도 29세를 넘기게 되면 가정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며칠 전 놀라운 반응을 발견했다. 친구들이 아들 결혼한다고 하니 전화들을 걸어와서 어떻게 그럴수가 있느냐고 놀라워한다. 나는 뭐라 답해야 할지 몰랐다.

요즘 결혼 적령기 청년들도 그런 반응이 많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정말 요즘은 결혼에 대해 너무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많아도 너무 많다. 친근한 친구 끼리는 속에 있는 말을 주고 받기도 하는

데, 물론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대부분 형편이 거기서 거기라, 적게는 천만원~삼천만원 쥐어주면서 새 가정을 꾸리는데 보탠다고 한다. 그러면 신혼부터 둘이 떨어져 새 살림을 차린다고들 한다.

한창 힘겨운 70-80년대에는 월세살이가 기본이고,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간다면 모두들 부러워했다. 결혼식도 제대로 치루지 못한 신혼생활이 많아서 교회마다 뒤늦은 합동결혼식을 치러주는 것이 유행이었다.

그런데 90년대 중반에 들어서에는 결혼 문화가 확 바뀌었다. 신혼여행을 해외로 가는 것이 보편화 되었고, 화려한 리허설 촬영은 국룰이 되었다. (기타 기본적인 웨딩 스케줄이 20가지가 넘는다)



그러니, 경제적으로 빠듯한 사람들에게는 마치 고난의 행군처럼 여겨질 수 있겠다.

과거도 그렇지만, 요즘도 부모님의 경제적 규모가 결혼식 비용을 결정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 앞에서의 결혼은 경제적 규모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단 하루의 결혼생활이라도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서로에게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그 자체로 진짜 결혼생활이다. 그것 이상 더 소중한 것은 없다. 그 변함 없을 줄 알았던 사랑이 풍선 바람 빠진 듯 한 사랑이 될 때 비로소 초라한 결혼생활이 된다. 다들 아시듯이.

물론 과거에도 많았지만, 요즘에 더 흔하게 독신도 많다. 심지어 바울은 독신주의자다. 그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까지 하였다. 사실 모두 장단점은 있다. 다만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두려워하고, 힘겨워하고, 복잡하고 귀찮

게 여기고 있다. 물론 내심은 간절히 원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ㅎ렬군 이야기) 매우 안타깝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들로 인한 일종의 사회적 현상이다.

또, 결혼이니, 독신이니, 이혼이니, 비혼이니, 레디컬 페미니즘이니 하면서 너무 많은 가치들이 난무하는 시대이다 보니 이제는 교회에서도 결혼이니, 이혼이니 하는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그래도 언젠가는 다루어야 할 주제라 생각했으며, 아들 결혼을 맞아 용기 내서 다루어 본다. -심지어 동기 모임에서도 더 이상 아들 딸 이야기 하지 말자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태의 가정(결혼이든, 이혼이든, 독신이든 뭐든간에)에 공통적인 해답은 있으니, 그것은 역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다. 바울은 독신이었지만, 그래도 이 두가지 만은 철저하였다.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독신’을 홀로 존재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곤란하다. 기독교적 독신이란,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는 신앙고백이다.

중요한 것은, 독신이든, 부부든 하나님이 ‘결석당한’ 곳에는 복이 없다. (설령 그곳에 돈도 많고, 쾌락도 많고, 세속적 향락이 많을지라도, 행복이라는 복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다.)

쾌락이나 향락이 행복이라고 믿는 자들은 세속주의에 속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독신도 충분하고, 자녀가 없더라도 부족함이 없다. 부부생활의 장점은 무엇인가? 날마다 봉사하고 희생해야 할 대상이 있어서 좋다. 자녀를 애써 낳으려고 한다든지, 애써 낳지 않으려고 하지 말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주셔도 감사, 없어도 감사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전체 인류에게 주시는 사명이지, 꼭 나도 그래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도 곤란하다. 현재 인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잘 수행하고 있다.

마치, 군인에게 나라를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다. 모든 군인이 소총수가 되거나, 모두 탄약병이 될 필요는 없다.

자신이 처한 형편,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

다만 특별히 다른 경우가 아닌, 평범한 ‘결혼’에 무엇이 더 필요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이 더 필요하다. ‘결혼’을 통한 가정만큼은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사랑과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모든 출생은 신비스럽고, 모든 영혼은 소중하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상으로 소중한 일은 없다. 그래서 아이의 부모가 그 아이를 돌보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다. (물론 그렇다고 일 하지 않고 아이만 돌보는 것은 어불성설. 그래서 기적이 필요하다.)

여기에 있는 모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며, 앞으로 태어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영혼 하나 하나가 소중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들의 손에 맡기시면서 기적을 약속해 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우리에게 감동이 된다. 잔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예수님. 어머니의 간절함을 뿌리치지 않으시는 예수님. 떨어졌으면 더 이상 마시지 않으면 되는 포도주지만, 어머니의 안타까움을 헤아리시는 예수님. 왜냐면 가정 만큼은 풍요로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가정이다.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적이 넘치고, 희생이 넘치고, 순종이 넘치고, 이해가 넘치고, 아량이 넘치고, 가르침이 넘치고, 양보가 넘치고, 치유가 넘치고, 포도주가 넘치고, 빵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모든 것이 넘쳐야 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적이 꼭 필요하다. (어제 결혼식 신부의 가정을 곁에서 볼 때, 내가 느끼기에, 이렇듯 넘치는 가정에서 자라난 신부라는 점이 가장 감사하다. 평범한 가정이지만, 하나님의 복과 기적이 넘치는 가정이다.)

여러분 가정 모두 영원토록 하나님의 기적이 넘치시길 축원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선린교회 교인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형편과 사정은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인들의 가정을 풍요롭게 하소서.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적이 넘치고, 희생이 넘치고, 순종이 넘치고, 이해가 넘치고, 아량이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고, 양보가 넘치고, 치유가 넘치고, 포도주가 넘치고, 빵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모든 것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꼭 필요하오니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아멘.